

이주민 유입으로 본 민족 갈등

- 크라스노다르 주의 메스케티안 투르크 사례를 중심으로* -



김혜진 (한국외대 HK 연구교수)



I. 서론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 관찰된 새로운 사회현상 중 하나는 바로 이주이다. 소련의 구성원이었던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 발트해 국가들이 각기 독립을 이루면서 러시아 영토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국가 명의민족들(титульные народы)이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신생독립국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영토로 복귀하는 현상도 일어났다. 그러나 곧 신생독립국가들이 정치, 경제적인 불안정에 시달리게 되자, 이 국가들로부터 좀 더 사정이 나은 러시아 영토나 혹은 유럽, 미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2-B00005).

국으로의 이주가 발생하였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지역 간 이주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극동 지역이나 시베리아 등지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이 좋은 중심부로 대거 이주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인구불균형이 러시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¹⁾

다양한 형태의 이주는 이주민과 수용지역의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한다. 이는 외부인과 내부인의 단순한 마찰이라기보다는 현지인 대부분이 러시아인고 많은 이주민들은 비러시아계 민족들인 까닭에 민족갈등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갈등부터 시작하여 비러시아인에 대한 스킨헤드의 공격과 같은 과격한 형태로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갈등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소비에트 시기동안 잠재되어 있던 민족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요구의 표출이다. 1980년대 말 이미 소련 전 지역에서는 많은 민족들이 민족부흥과 민족문화 복원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초 연이어 제정된 일련의 법령들, 예를 들면 사회단체에 대한 법, 민족문화 자치에 대한 법 등에 힘입어 민족단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고, 민족존속과 발전을 위한 활동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각 민족그룹들의 요구가 맞부딪히게 되면서 민족 간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앞서 본 첫 번째 경우가 영토 문제 및 민족자치권 확립과 결합된 형태이다. 민족적 특성이나 역사적 경험을 무시한 스탈린 시기의 일괄적 행정 분할로 인해, 역시 스탈린 시기에 강제유형을 당했던 민족들이 소련 해체 이후 자신들의 본거지를 되찾기를 원하면서 민족갈등이 첨예화되었다. 그 예로 체첸인, 잉구시인과 북오세티야 간의 민족영토 분쟁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이주로 인해 지역 내 민족구성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타인들에 대한 경계심의 형성 때문이다.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밖으로 표출될 때 민족갈등은 보다 심화된다.

이 글은 민족갈등의 다양한 원인 중 이주에 초점을 맞춰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민족갈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러시아에서 이주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모스크바나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중심부와 러시아 서남부 지역이다. 여기서 남부지역이라 함은 북카프카즈 행정관구, 남부행정관구, 불가행정관구를 모두 포함한다. 남부지역 중에서도 이주현상이 활발한 지역으로는 크라스노다르 주, 스타브로폴 주, 로스토프 주 등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으로의 이주가 활발한 이유는 지리적 위치상 이 지역이 카프카즈 및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더불어 오래 전부터 양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심부나 시베리아 지역에 비해 기후 조건도 양호하다. 이 지

역으로의 이주민 유입률은 1990년대 초반에 가장 높았으나,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주춤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크라스노다르 주이다. 인근의 로스토프 주나 볼고그라드 주의 경우 1993-1994년 이주율 하락이 시작되었다면, 크라스노다르 주로의 이주는 90년대 중반에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이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약 260,000명이 남부지역으로 이주하였는데, 이 중 50% 이상이 크라스노다르 주로 이주하였다.²⁾ 이 지역을 민족갈등의 사례로 들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이주민들의 유입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전혀 상관없는 제3국으로 다시 이주해야 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주현상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독특한 민족갈등 사례를 볼 수 있는 크라스노다르 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은 두 번째 장에서는 크라스노다르 주의 이주민 유입상황과 지역 내 민족구성의 특징 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크라스노다르 주에서 민족갈등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메스케티안 투르크인과의 갈등 원인을 분석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민족갈등의 형태가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보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주로 인한 민족갈등의 원인을 정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크라스노다르 주의 민족적 배경

1. 이주민 유입상황과 민족구성의 변화

크라스노다르 주에는 5백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³⁾ 이 지역은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주에 이어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 해체 이후 이 지역으로의 이주율은 남부관구의 어떤 지역보다도 더 높았다. 1989년 이 지역 인구수는 4,620,900명이었으며, 2002년 통계에 따르면 5,125,221명이었다. 1989년 대비 2002년 인구수는 10% 이상 증가한 셈이다.⁴⁾ 물론 1991년 크라스노다르 주에 아디게야가 편입되었다는 점을 인구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이민자들의 유입이다. 1990년대 이 지역으로의 이민자 유입률은 러시아 평균보다 5-6배 정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 1에서 보듯이 활발한 이주가 관찰되었던 다른 남부지역과 비교해 보아도, 크라스노다르 주로의 이주율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크라이나, 카자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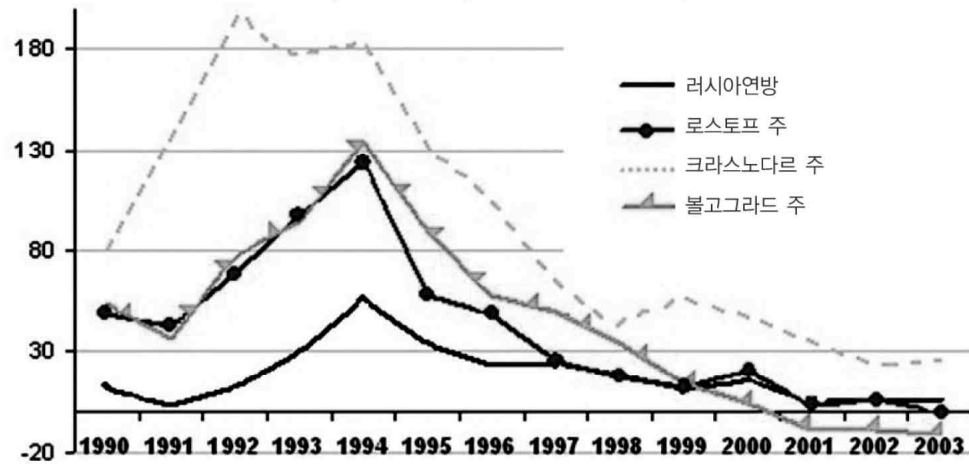
1) 1991년부터 2002년 사이 27백만 명의 사람이 러시아 내에서 이주하였다.
Вопросы регулирования ми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нали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2003. Вып. 3. С. 10.

2) Абдулманапов П. Г. Этносоциальное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ЮФО.
<http://www.rppe.ru/wp-content/uploads/2010/02/abdulmanapov-pg.pdf>
3) 2010년 12월 기준, 이 주에는 5,179,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스노다르 주정부 사이트
<http://krasnodar.ru/content/16/show/39797/>
4) Итоги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89 г., Итог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2002 г.

스탄, 그루지야로부터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되어 왔으며, 북카프카즈 지역과 서시베리아 등 러시아 내부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인구가 이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이곳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민족그룹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 러시아연방과 남부의 세 지역
(로스토프 주, 크라스노다르 주, 볼고그라드 주) 내 이주율 비교

Рис. 1. Коэффициенты миграционного прироста в областях и краях ЮФО, на 10 тыс. населения



※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Социальный атлас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 Портреты регионов
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й. http://www.socpol.ru/atlas/portraits/k_kray.shtml

크라스노다르 주 내 러시아인들은 전체 인구 중 약 8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나머지는 다양한 민족들이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적으로 가장 우세한 민족은 아르메니아인이다. 2002년 쉐러시아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주에 살고 있는 아르메니아인의 수는 약 275,000명으로 이 주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다.⁵⁾ 그 뒤를 잇는 민족들이 우크라이나인(약 132,000명), 타타르인(25,525명), 벨로루시인(21,852명), 그루지야인(20,225명) 등이다.⁶⁾ 그리스인, 독일인, 유대인, 집시 등도 오랫동안 이 지역에 거주해 왔으나, 이 중 그리스인, 유대인, 독일인들은 소련 붕괴 이후 모국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 수는 많이 감소하였다. 이들이 떠난 자리를 1980년대 말부터 이주해 온 메스케티안 투르크인, 고려인 등 소수민족들이 대신하고 있다.

크라스노다르 지역 중 가장 이민자들이 많이 찾는 곳은 다음 세 지역으로 간추릴 수 있

5)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6) Итог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2002 г.

다.⁷⁾ 이 주의 중심지인 크라스노다르와 그 인근 지역, 그리고 해안지역의 휴양지와 로스토프 주의 수도인 로스토프나-도누와 가까운 북쪽지역, 마지막으로 비교적 중심지에서 떨어진 남동지역이다. 크라스노다르의 경우 이 주의 중심지인 만큼 취업이나 급여 측면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안지역 역시 항구발전에 최적의 장소로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많다. 로스토프나-도누 시는 남부관구의 행정중심지이자 고등교육이 발달된 도시이면서, 러시아 중심부와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이 도시와 인접한 북쪽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남동지역은 중심에서 떨어진 대신 집값이나 물가가 낮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카자크 집단(Казачество)

러시아 역사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카자크(Казак, Cossack)는 흔히 무거운 과세와 압제를 피해 러시아 외곽지역으로 도망간 러시아 농민들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카자크는 발음이 유사한 '카자흐'와 혼동되지만, 인종상으로는 카자흐인과 무관한 슬라브인으로 '자유로운 사람'을 의미한다. 러시아 남부에 흐르는 돈 강, 야익 강 유역을 중심으로 카자크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합류하는 농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카자크 집단의 규모와 그 거주지역도 점차 확대되었다. 카자크들의 거주지에 따라 돈 카자크, 시베리아 카자크, 자포로지에 카자크 등으로 구분되었다. 카자크들은 러시아의 편에 서서 수많은 전쟁에 참여해 왔으며, 러시아가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국경 지역을 경비하는 일을 도맡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 당시에는 백군의 편에 서서 볼셰비키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카자크 집단은 해체되었고 억압받았다. 소련 붕괴 이후 카자크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으며, 공동체를 부활시켰다.

카자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그 집단이 최초로 형성되었던 러시아 서남부 지역이다. 2002년 쉐러시아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40,028명이 자신을 카자크라고 지칭하였으며, 이 중 95.5%가 남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러시아 남부관구에서도 가장 많은 수의 카자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로스토프 주이며, 크라스노다르 주에는 약 17,500명의 카자크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은 과거 가장 큰 카자크 집단이었던 자포로지에 카자크들이 쿠반 지역으로 이주한 지 210주년인 해였다. 이는 카자크 집단의 단결과 문화부흥을 외치는 또다른 계기가 되었으며, 카자크 단체에서는 이를 성대하게 기념하였다. 크라스노다르 주의 카자크들은 전체 인구의 0.3% 밖에 안 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카자크는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터를 잡

7) Социальный атлас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 Портреты регионов, 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й.
http://www.socpol.ru/atlas/portraits/k_kray.shtml

아온 토착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지역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카자크들은 그들만의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집회나 단체를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15-16세기 카자크들은 '보이스코(Войско)'라고 불리는 중앙정부와는 독립적인 군사-정치적 조직을 만들었는데, 현재에도 만 명 이상의 카자크들로 구성된 보이스코가 존재하고 있다. 1996-1998년 사이 국가등록된 카자크 집단으로는 불가,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테르스크, 자바이칼스크, 우스리스크, 예니세이스크, 오렌부르크, 쿠반, 돈 카자크 등 10개의 보이스코에 달한다. 또한 여전히 카자크 집단의 수장을 '아타만(атаман)'이라고 부르며, 보이스코와 아타만을 중심으로 카자크 집단의 단결과 통합을 실현하고 있다.

크라스노다르 지역은 전통적으로 카자크들의 땅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뿌리가 깊은 이 지역에서 카자크들은 강한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인구조사에서 러시아인이 아닌 카자크로 민족소속을 표기할 만큼, 자신들을 별도의 민족이라고 규정짓기를 원하고 있다. 지역 내 독자적 위치, 독특한 사회계층이라는 자부심, 자신들이 이 영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신념은 종종 이주민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로 드러나기도 한다.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민족갈등 사례들을 살펴보면 카자크 집단이 연루되지 않은 경우가 없을 정도로 비슬라브 민족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III. 메스케티안 투르크인과의 갈등 원인

크라스노다르 주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 중 지역주민과 가장 문제가 많았던 민족으로는 메스케티안 투르크인을 들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들이 어떠한 경로로 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갈등이 불거지게 된 원인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1. 메스케티안 투르크인의 이주

메스케티안 투르크인 혹은 아흐스카 투르크들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터키계이긴 하지만, 본래 그루지야의 남쪽 국경 근처에 거주해 왔다.⁸⁾ 그러나 이들은 1944년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강제이주 되었다. 이때 이주한 사람들은 90,000명

이 넘으며, 이 중 16%는 이주하는 도중에 사망하였다. 1953년 소련 내무부 통계에 의하면, 중앙아시아에 66,823명의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⁹⁾ 1956년 거주제한이 해제된 후 일부는 같은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으로, 일부는 북카즈카즈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투르크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었다.¹⁰⁾ 1989년 우즈베키스탄 페르간 사태가 발발하자 약 17,000명 정도의 메스케티안 투르크들은 난민의 신분으로 러시아로 이주하였다.¹¹⁾ 그 후 1년 반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난 여러 민족분규로 인해 총 74,000명의 투르크인들이 다시 국외로 떠났는데, 이 중 17,500명은 카자흐스탄으로, 16,000명은 러시아로 이주하였으며, 4만 명 이상이 아제르바이잔으로 떠났다.¹²⁾ 현재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메스케티안 투르크의 수는 270,000-280,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¹³⁾

1989년 러시아로의 이주 초기에만 하더라도 투르크인들은 러시아의 중앙지역에 주로 정착하였으나, 오를, 트베리, 스몰렌스크 주의 익숙하지 않은 기후와 힘든 생활 조건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다른 지역이나 아제르바이잔으로 다시 이주하였다.¹⁴⁾ 현재 러시아로 이주한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은 로스토프 주와 스타브로폴 주 등 주로 남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크라스노다르 주 내 메스케티안 투르크인의 수는 불과 3,500명 정도에 그쳤으나,¹⁵⁾ 자연출생률이나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의 계속되는 유입으로 그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1994-1995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메스케티안 투르크인의 수는 13,000-14,000명이었으며, 1997-1998년에는 약 20,000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¹⁶⁾ 크라스노다르 주에서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남서쪽에 위치한 크림 지역(Крымский район)을 비롯하여 압쉐론스크(Ашшеронск)와 아빈스크(Абинск) 지역이다. 특히 크림스크 지역의 바레티콥스크 마을(станция Варенниковская)은 이 지역 투르크인들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많은 수가 살고 있다.¹⁷⁾ 이곳에 거주하던 크림 타타르인들이 크림 지역으로 떠나자,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이 그들이 남기고 간 집이나 영지들을 차지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투르크인들은 실업 상태에 있거나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9) Бугая Н. Ф. Турки-месхетинцы: Долгий путь к реабилитации.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М., 1994. С. 24, 38-45.

10) 1989년 추소련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련 내 투르크인들의 수는 총 207,500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06,000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1) <http://www.memo.ru/hr/discrim/meshi2/general.htm>

12) Юнусов А. Ахыскынкские(месхетинские) турки: Дважды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й народ.

13) <http://www.memo.ru/hr/discrim/meshi2/general.htm>

14) Там же.

15) http://www.interethnic.org/News/030507_6.html

16) <http://www.memo.ru/hr/discrim/meshi2/general.htm>

17) http://www.interethnic.org/News/030507_6.html

8) 메스케티안 투르크의 형성에 대한 학설로는 그루지야 기원설과 터키 기원설이 있다. 이 기원설에 따라 민족명칭도 달라지는데, 그루지야 기원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메스케티안 투르크로, 터키 기원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흐스카 투르크로 부른다.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Юнусов А. Ахыскынкские(месхетинские) турки: Дважды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й народ //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вказ No. 2. 1999. http://www.ca-c.org/journal/cac-02-1999/st_20_junusov.shtml

2. 메스케티안 투르크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시선

크라сно다르 주민들이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 메스케티안 투르크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이들의 이주가 영구적인 정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으로 보는 주민들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크라сно다르 지역주민들은 이들이 잠시 머물다가 옛 거주지였던 그루지야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기대하였다. 이들이 난민의 신분으로 이주해 왔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투르크인들은 지역 주민과 동등하게 의뢰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동정어린 시선도 받았다. 그러나 메스케티안 투르크인 자신과 크라сно다르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이들의 모국귀환은 좀처럼 이루어질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루지야는 EU 가입조건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와 안보적 이유로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¹⁸⁾ 그루지야 정부의 입장은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을 예전처럼 터키와 근접한 지역에 대거 거주시킬 시 영토 상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다.¹⁹⁾ 페르간 사태 이전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았던 투르크인들은 우즈베키스탄 시민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즈베키스탄 시민법이 제정된 시기는 1992년으로 당시 그들은 이미 우즈베키스탄을 떠난 상태였고, 1992년 이전에 우즈베키스탄 거주등록을 가지고 있거나 우즈베키스탄에 거주지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은 크라сно다르 지역에 계속 정착을 하게 되었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두 번째는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의 소극적인 통합의지이다. 이주한 사람들은 새로운 정착지역에서 동화, 통합, 주변화, 분리와 같은 생존전략을 선택하게 된다.²⁰⁾ 적극적인 동화 의지를 가지고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데 능동적인 경우가 있는 반면, 자민족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나 생활양식만을 고집한 채 이주한 지역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따르지 않아 스스로 고립되는 경우도 있다.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은 후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의 유창하지 못한 러시아어 구사능력, 낮은 교육 수준, 그리고 그들끼리의 폐쇄적인 집단생활 등은 현지 사회로의 통합의지가 낮은 것으로 보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초래하였다.

세 번째는 이들에 의해서 행해진 범죄에 대한 우려이다. 현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 하나는 이주민에 의한 범죄에 대한 것이다. 주지사를 비롯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의 밀집거주지에 범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투르크인들이 직접 범죄에 참여한 결과인지, 혹은 단순히 투르크인 거주지에서 다른 민족들이 저지른 범죄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²¹⁾ 실질적으로 이주민들이 강도, 살인, 강간, 불법기업 등 여러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있다. 마약밀거래, 무기판매, 조직범죄 등을 위해 일부러 특정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주민 범죄는 사실에 비해 과장된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러연방 내무부의 자체 통계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크라сно다르 지역에서 메스케티안 투르크인이 저지른 범죄는 30-50건이다. 투르크인들이 이 주 전체 인구의 0.3%를 차지하는 것과 이 주에서 매년 일어나는 범죄가 약 55,000 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이 실제로 저지른 범죄는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²⁾

세 번째는 종교,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다. 이슬람교도인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은 러시아 정교를 믿는 지역 주민 대부분과 큰 종교적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갖고 있다. 더욱이 북카프카즈 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다른 이슬람 민족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크라сно다르 지역의 이슬람화를 우려하는 현지인들은 특정 종교를 가진 이주민 유입과 그수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종교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종교가 지배하는 생활관습, 행동양식이나 풍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슬람교도들인 이들은 대개 대가족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녀를 많이 두는 경향, 즉 높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다.²³⁾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의 대거 유입과 정착을 환영하지 않는 일부 지역주민들은 이대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들의 수가 러시아인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이 지역의 인구평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투르크인이 이 주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으며, 러시아인이 86% 이상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인이 이 지역에서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위험이나 투르크인들이 수적으로 우세를 차지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네 번째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에서 기인한다.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데, 이들은 같은 농업에 종사하는 현지인들과의 경쟁을 야기한다. 또한 자신이 직접 개인적으로 경작한 경작물이나, 현지인에게서 구입한 농산물을 다시 판매하는 투르크인들

18) 그루지야는 2007년 6월에야 그루지야 남쪽에 거주하였다가 40년대 중앙아시아로 이주된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에 대한 귀환법을 제정하였다. 그루지야 귀환을 원하는 투르크인들은 그루지야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kavkaz-uzel.ru/articles/119201>

19) Положение турок-месхетинцев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и мигр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краевых властей <http://kpd.nvsk.ru/bib/tm/memo-1-03.htm>

20) Berry J.W.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Chun, P. Balls-Organista, G. Marina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Washington: APA Books, 2003. p. 17-37.

21) ИА REGNUM, 25.07.2004. Турки-месхетинцы покидают Кубань - этого дня кубанцы ждали давно

22) <http://minorities.ceprs.indem.ru/krasnod/krasnod12.htm>

23) 그러나 메스케티안 투르크 이주민들도 서서히 유럽식의 생활방식을 따라가게 되어, 자녀출생률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부모세대만 하더라도 6명에서 많게는 10명의 자녀를 두었던 것에 반해, 2005-2007년 메스케티안 투르크 가정에서 자녀수는 평균 2-3명이었다. <http://www.perepis-2010.ru/smi/detail.php?id=5445>

의 경제활동 특징은 현지인으로부터 거부감을 유발시키고 있다.²⁴⁾

마지막으로 러시아 역사를 통해 축적된 투르크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탓도 있을 수 있다. 러터 전쟁으로 인해 생긴 투르크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20세기 초반 쿠반 지역에 담배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터키인들이 여성과 아동 노동력을 야만적으로 착취했다는 점에서 더 강해졌다.²⁵⁾

카자크인들은 과거 러시아 역사에서 특별한 수호자로 자리매김했던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보호자이기를 자청하고 있다.

이처럼 투르크인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는 투르크 공동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기인하거나, 혹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고정관념이 작용하였거나 과장된 우려에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카자크 집단의 배타적 태도

카자크 사회는 앞서 살펴봤듯이 이주민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유독 크라스노다르 주에서만 목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남부 지역 내 카자크 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카자크들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비러시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카자크 집단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돈 보이스코(Всевоелкое Войско Донское)'는 2002년 볼고그라드 주, 로스토프 주, 보로네즈 주의 주지사들에게 더 이상 해당 지역에 이슬람 사원(мечеть)의 건설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러시아 정교를 믿는 카자크들의 지역에 이슬람 사원의 급증은 종교 밸런스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²⁶⁾ 이슬람교도들의 대거 유입과 사원 및 이슬람 학교의 건설, 대규모 종교의례 행사 등으로 인해 지역의 이슬람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자크 집단이 이슬람 축제가 열리는 날 거리로 나와 축제를 즐기는 투르크인들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²⁷⁾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카자크들과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민족그룹은 카프카즈나 중앙아시아계 민족들이다.²⁸⁾ 이주민에 대한 카자크 집단의 비우호적인 태도는 과격함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주정부로부터 이민자들의 여권 확인 업무를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카자

크들은 여권검사를 명목으로 투르크인들이 대거 거주하는 지역에 불시 침입했으며, 폭행도 서슴치 않았다. 또한 투르크인들이 자신을 상대로 고소할 수 없도록 협박하였다.²⁹⁾ 인근 로스토프 주에서는 카자크 부흥운동의 리더 중 한 명이자, 96 카자크 연대 사령관이었던 포트르 몰로디도프가 세 명의 카프카즈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³⁰⁾

전반적으로 볼 때 카자크 집단들은 이주민, 외부인들을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요소로 보는 경향이 짙으며, 이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하나의 의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스케티안 투르크인을 포함한 비슬라브계 이주민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메스케티안 투르크 외에도 아르메니아인, 쿠르드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카자크인들은 과거 러시아 역사에서 특별한 수호자로 자리매김했던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보호자이기를 자청하고 있다. 민병대와 같이 자신들의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경찰보다 더 빨리 범죄현장에 도착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등 지역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것이 해당 지역에서 자신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 생각하고 있다.³¹⁾ 이들은 반카프카즈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카자크가 지역사회에서 특권을 가지고자 한다. 카자크들은 이주민들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지역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지방정부에게 이주민들의 정치, 경제적 권리를 제한하고, 해당지역 밖으로의 추방까지 요구하였다.

문제는 크라스노다르 주정부가 투르크인들에 대한 압박에 있어 카자크 집단을 적극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주정부는 투르크인들을 비롯하여 카프카즈 이주민들의 서류를 검사하는 일에 카자크들을 동원하였으며, 이러한 카자크들의 특권을 법률로도 제정하였다.³²⁾ 사실상 카자크들에게 이주민 통제 및 억압과 관련된 일을 전권 위임한 셈이다.³³⁾ 카자크 집단의 무력적 행동에도 어떠한 처벌이나 책임이 따르지 않고 있으며 사회의 암묵적 용인으로 인해 카자크 집단의 이러한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는 합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IV. 메스케티안 투르크인과의 갈등 심화

1. 지역 정부의 태도와 이주정책

29) 관련 기사를 몇 가지 들자면 다음과 같다. <http://www.regnum.ru/allnews/228117.html>,

30) РИА НОВОСТИ. <http://rian.ru/society/20030319/350072.html>

31) Казаки: охранители или угнетатели? <http://inosmi.ru/inrussia/20050808/221423.html>

32) Приложение к Постановлению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края от 23 октября 2002 года №1759.

33) Казаки: охранители или угнетатели? <http://inosmi.ru/inrussia/20050808/221423.html>

24) Колесов В. И., Кочергин А. А., Лейбовский А. В. Мониторинг Дискурса межэт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ультивируемый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Краснодар 2002. С. 7-8.

25) Ракачев В., Ракачева Я. Образ диаспор в прессе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 Диаспора. 2007. No 1. С. 28-29.

26) Казачи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http://kazak-center.ru/publ/122-1-0-191>

27) Положение турок-месхетинцев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и мигр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краевых властей. <http://kpcd.nvrsk.ru/bib/tm/memo-1-03.htm>

28) 위의 글. 그러나 이 사이트는 카자크공동체의 사이트인 까닭에 카자크가 피해자인 사례들을 들었다.

크라스노다르 주에는 1992년 민족문화 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이 안에는 30여 개의 민족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다. 이 단체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민족협회 건물이나 토지 등을 제공 받았다. 이외에도 여러 민족들을 위해 지원을 보내고 있다. 예를들면, 1999년부터는 소치 내 라자레프 지역과 투압신스크 지역에 살고 있는 샵수그 족(шапсуг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주고 있다. 2001년부터는 이 지역 민족들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2백만 루블을 책정하기도 하였다.³⁴⁾ 크라스노다르 주정부가 지역 내 다민족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제도를 갖추고 그들의 활동을 위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메스케티안 투르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앞서 봤듯이 투르크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해 오게 된 것은 페르간 사태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이들은 난민의 신분을 부여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소련 법에 의해 이들은 러시아 이주와 정착을 위한 물질적 도움과 사회적 혜택 등을 보장받게 되었다.³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스노다르 주는 러시아 중앙법에 따르지 않고 있다.³⁶⁾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은 이주 후 거주등록과 러시아 시민권을 신청하였지만, 지역정부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 인해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은 취직, 연금 및 생활보조금 수령, 대학 입학, 의료보험 취득, 혼인신고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거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러시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994년 거주등록을 갖게 된 메스케티안 투르크인은 전체 투르크 이주민 중의 약 5%에 그쳤을 뿐이다.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 중에서 거주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빨리, 그리고 차별적인 법적 제한이 도입되기 전인 1989년 6-7월 이 지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거나, 크라스노다르 주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소그룹으로 정착했던 사람들, 혹은 90년대 초반 이주민에 대한 제한이 잠깐 약해졌던 시기에 온 사람들, 또는 법정소송을 통해 거주등록증을 받아낸 사람들이었다.³⁷⁾ 10년 후인 2004년에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2004년 당시 크라스노다르 주 내 12,000명 정도의 투르크인 중 러시아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단지 5천 명이었다. 나머지 7천 명 중에서 이민카드를 작성한 사람은 744명뿐이었다.³⁸⁾ 주정부는 이들의 임시거주등록도 허가하지 않는 데다, 이민카드 작성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 이민카드에는 무국적자임이 표기되는데, 이민카드를 작성한 이들이 추후 러시아 여권을 신청하더라도, 주정부가 무국적자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민카드 작성을 조건으로

가지고 있던 여권도 강탈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민카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체포를 하거나 벌금을 부여하기도 하여, 이와 관련된 법정소송도 여러 차례 일어난 바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 시민권 부재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는 다양했다. 1989년 이주 당시 미성년자인 탓에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성년이 된 후에도 여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였다.³⁹⁾

이 뿐만 아니라, 크라스노다르 주정부는 투르크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거주등록 방침을 세웠으며 모든 기본적인 권리에 있어서 제한을 두었다. 예를 들면 주택이나 그 영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회보장제도가 의료보험 혜택에서도 이들을 제외하였다. 또한 여권 및 기타 개인 서류들을 받는 것도 불가능했고, 투르크 가정의 자녀들은 중등 교육 이후로는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⁴⁰⁾ 거주등록을 하지 못한 이들은 불법체류자의 신세가 되는데, 주정부는 경찰 28명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의 마을이나 시장, 직장, 단체 등을 불시 검문하게 하였다. 여권을 검사하면서 벌금 명목으로 집안의 물건, 장사 품목, 가축까지도 몰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⁴¹⁾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에 대한 비우호적인 주정부의 입장은 지역정부의 수장인 주지사의 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주지사를 역임했던 콘드라텐코(Н. И. Кондратенко)는 공식에서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을 겨냥하여 극단적인 발언을 자주 뱉고는 했다. 그는 투르크인들을 ‘손님’으로 부르며 현지 주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조속히 크라스노다르 주를 떠나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표하기도 했다.⁴²⁾ 그 뒤를 이은 트카체프(А. Н. Ткачев) 주지사 역시 지역방송국의 생방송에서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은 “위험한” 민족이라고 칭하며 투르크인들의 집거지를 수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⁴³⁾

2. 지역사회와 언론의 부정적 분위기

지역주민들은 외부인들의 대거 유입으로 빚어진 노동력 시장에서의 경쟁, 범죄율 증가 등을 우려하며, 이주민을 경계하거나 시기하기도 한다. 쿠반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사바(М. Савва)의 연구에 따르면, 크라스노다르 주민의 41%가 이주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주민이 개인적으로나 지역사회 전체에서 볼 때 유익한 부분이 전혀 없

34) Осипов А. 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й как ви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 Диаспоры. 2004. № 4. С. 10-11.

35) Постановление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 503 от 26.07.89, Постановление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РСФСР № 220 от 13.07.89. <http://www.memo.ru/hr/discrim/meshi2/general.htm>

36) 크라스노다르 주처럼 메스케티안 투르크 난민들을 러시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역은 스타브로폴 주와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이었다. 90년대 중반이 되어야 이 지역 내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의 거주등록 절차가 시작되었다.

37) <http://www.memo.ru/hr/discrim/meshi2/general.htm>

38) ИА REGNUM 25.07.2004. Турки-месхетинцы покидают Кубань - этого дня кубанцы ждали давно.

39) Положение турок-месхетинцев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и мигр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краевых властей. <http://kpd.nvrsk.ru/bib/tm/memo-1-03.htm>

40) 자세한 범조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Осипов А. 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й как ви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С. 7-10.

41) Положение турок-месхетинцев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и мигр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краевых властей. <http://kpd.nvrsk.ru/bib/tm/memo-1-03.htm>

42) Не забывай те, что вы в гостях! // Призыв. 2001. 8 сентября

43) Положение турок-месхетинцев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и мигр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краевых властей <http://kpd.nvrsk.ru/bib/tm/memo-1-03.htm>

다는 사람들도 67%나 되었다.⁴⁴⁾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스킨헤드나 극우주의 단체들의 활동과 같은 과열된 민족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메스케티안 투르크를 비롯한 아르메니아인, 집시 등 이 지역 내 비러시아계 민족들을 대상으로 구타, 강탈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제노포비아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인종주의적 성격을 띤 단체들은 점점 조직성까지 갖추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복까지 갖추어 입는다던가, 특정 민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사전계획을 구상한다던가, 위장을 하기도 한다.⁴⁵⁾

특정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형성되지만,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대중매체 속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항상 긍정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고, 종종 올바르게 못하거나 과장되어 독자인 지역주민들의 감정적인 면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러시아 민족들에 대한 지역언론의 평가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투르크인들을 포함하여 이 지역 소수민족에 대해 올라르지 않은 정보를 담고 있는 지역 신문으로는 ‘쿠반 투데이(Кубань Сегодня)’, ‘크라스노다르 익스프레스(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урьер)’ 을 들 수 있다.⁴⁶⁾ 제목에서부터 특정 민족을 비판하는 기사들도 자주 볼 수 있다. 몇 가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장관은 떠났는데, 투르크인들은 아직 떠나지 않았는가?(Министр уехал, а турки остались.. пока?)”, “메스케티안 문제의 ‘트로이 목마’ (Троянский конь месхетинской проблемы)” 등.

랴카췌프(В. Рякачев)와 랴카췌바(Я. Рякачева)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가장 부수가 많은 세 개의 지역신문, ‘쿠반 뉴스(Кубанские новости)’, ‘쿠반 투데이(Кубань сегодня)’, ‘자유 쿠반(Вольная Кубань)’ 에 비친 소수민족들의 이미지를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 비러시아계 민족에 대한 기사 중 부정적인 기사가 52%를 차지하였으며, 중립적인 기사가 28%, 긍정적인 의견은 20%에 그쳤다.⁴⁷⁾ 언론에 가장 많이 언급된 민족으로는 아르메니아인(37.5%), 메스케티안 투르크인(29%)이었다.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기사는 중립적인 기사와 긍정적인 기사가 약 35%로 비슷했다면, 투르크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76.3%로 이들에 대한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⁴⁸⁾ 아르메니아인과 투르크인 모두 카즈카즈 출신의 민족이지만, 아르메니아인의 경우 이미 18세기부터 이 지역에 정착해 왔던 만큼 현지인과 함께 생활한 시간이 길며, 러시아어 구사능력이나 생활문화 등에서 높은 동화와 통합수준을 보여 주고 있는데다, 정교라는 종교적 유

사성을 가지고 있어 메스케티안 투르크에 비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들어 불법 이주노동자가 늘면서 더욱 심해졌다. 지역대중매체들이 지역 범죄를 불법 이주노동자들과 연관을 맺으면서 지역주민들의 분위기도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3.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의 재이주

러연방에서 제정해 놓은 이주법 및 난민에 대한 법안과는 동떨어진 크라스노다르 주정부의 정책, 이주 전 거주지였던 그루지야나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메스케티안 투르크인과 관련된 사회 분위기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내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의 상황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2003년 10월 메스케티안 투르크인과 관련된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사절단이 크라스노다르 지역을 방문하였다. 이 사절단은 유엔난민기구, 국제이주기구, 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 유럽회의 등 국제단체 및 미대사관 대표들, 러시아 연방 관계자들, 러시아 인권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사절단은 메스케티안 투르크 단체의 리더들⁴⁹⁾과 비정부단체 대표자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미국 이주에 대한 방안과 난민자격 부여에 대해 논의하였다. 뒤이어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32개 민족문화단체장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여러 민족 지도자들은 투르크인 자신들이 주변 민족들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민족문화센터에도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투르크인들을 비난하였다. 이때 주목할 만한 것은 아시리아인, 체첸-잉구쉬 등 비슬라브 민족 대표자들도 투르크인에 대한 비판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투르크인들로 인해 다른 비러시아계 민족들도 현지 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였다.⁵⁰⁾

2004년 2월 16일부터 메스케티안 투르크인의 미국이주 프로그램이 실현되었다. 국제이주기구(IOM)의 모스크바 지사에 따르면, 2004년 당시 5천 명 이상의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이 미국 이주 의사를 밝혔다. 15,000명의 이주신청자 중 약 12,000명이 미국으로 떠났는데, 이때 떠난 투르크인들 중에는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은 로스토프 주나 스타브로폴 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투르크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가짜 서류나 결혼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개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000년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약 13,000명의 투르크인들이 살았다면, 2005년 무렵에는 약 6,000명 정도의 투르크인들이 이 지역에 잔류하고 있었다.⁵¹⁾ 미국이주 프로그램에 선정된 이들은 포틀랜드,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등 미국의 60여개 도시로 이주하였

44) Савва М. Армяне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в контексте современной миграционной ситуации // 21-й век. 2007. № 2. С. 75-76.

45) Савва М. Новые диаспоры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права, интересы, динамика интеграции и восприятие местным обществом), Краснодара 2005. С. 20.

46) Коваленко Г. под ред. А. Верховского, Язык Вражды в предвыборной агитации и вне ее. М., март 2004. <http://sova.center.ru>

47) Рякачев В., Рякачева Я. Образ диаспор в прессе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С. 18.

48) Там же. С. 22-28.

49)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의 단체로는 ‘바탄(Ватан, 조국)’이라는 국제조직과 ‘우미드(Умид, 희망)’이라는 크라스노다르 조직이 있다.

50) ИА REGNUM 16.10.2003. <http://www.regnum.ru/allnews/168537.html>

51) Казаки: охранители или угнетатели? <http://inosmi.ru/inrussia/20050808/221423.html>

다. 2010년에는 약 5천 명 정도의 투르크인들이 크라스노다르 주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²⁾

난민의 신분으로 크라스노다르 주로 이주해 왔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제3국으로 떠나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미국 이주가 실제로 실행되기 전까지 투르크인들에 대한 검문, 여권검사, 벌금부과는 계속되었다. 계속되는 민족갈등과 주변으로부터의 억압에 의해 미국 이주를 주저하던 투르크인들도 미국행을 결심하기도 하였다. 남아있는 투르크들은 주택 판매 및 기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미국행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다. 전자의 경우 문제가 해결될 경우 난민 신분으로 미국으로 갈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대부분 중장년층인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영어 습득의 어려움,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 또 다시 러시아로의 이주에 이은 세 번째 이주라는 좌절감, 러시아에 대한 애착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러시아에 잔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이주는 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이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주정부의 정책, 현지사회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추방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강제성도 띠고 있다. 민족갈등이 이주한 민족들이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시 이주하는 사태로 까지 이어지는 이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내 타민족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로스토프 주의 마르티노프스키 지역(Мартиновский район)에서는 2000년 지역주민과 체첸 디아스포라 간의 갈등으로 결국 체첸인과 다게스탄인들이 이 지역에서 추방되는 사태가 일어났다.⁵³⁾ 이주민과 현지 주민 간의 반목이 어떠한 결과까지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V. 결론

소련 해체라는 사회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면서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러시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주가 진행 중이다. 이주는 글로벌 시대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지만,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주민 그룹과 수용국 간의 매끄럽지 않은 관계, 불법이주, 이주 관련 범죄, 민족갈등 등은 어느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문제이다. 러시아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중앙아시아 및 카프카즈 국가들로부터 러시아로의 이주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비러시아계 이주민들과 러시아인이 대부분인 현지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

서는 러시아에서 이주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 중 하나인 크라스노다르 주의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을 민족갈등의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크라스노다르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지인과 이주민 간의 갈등은 투르크인들에 한한 것도 아니며,⁵⁴⁾ 이와 같은 불화는 비단 크라스노다르 주의 문제만도 아니다. 러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민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갈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투르크인들의 경우 1980년대 말에야 크라스노다르 지역으로 이주해 온, 그래서 비교적 공존역사가 짧고, 문화와 종교의 차이도 두드러지며 지역사회로의 통합의지가 약했다는 점 등이 민족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경우에도 민족 간 마찰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의 경우도 현지 러시아인과의 갈등이 자주 표면화되어 왔다. 크라스노다르 지역 내 아르메니아인들은 비러시아계 인구 중 수적으로 가장 큰 규모, 지역 정계 진출의 성공, 쿠반 지역 경제의 30%를 도맡고 있을 정도의 경제적 파워⁵⁵⁾ 등으로 인해 현지 러시아인들로부터 심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게다가 소련 붕괴 이후 새로운 아르메니아인들이 이주하면서, 아르메니아인 디아스포라 내부도 신구로 나뉘게 되었고,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 전체적으로도 점점 이주민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크라스노다르 지역주민들, 특히 카자크 사회의 공개적인 불만과 원성으로 인해 주정부가 아르메니아인들의 여론조사에 나서는 일이 일어났으며, 지방 언론이 개입하여 반아르메니아적 성격을 띤 기사들을 내보내며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였다.⁵⁶⁾ 아르메니아인이 소유한 가게나 식당을 부수거나, 아르메니아인들의 묘지 내 비석을 파기하는 등의 사건들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메스케티안 투르크인이나 아르메니아인 외에도 쿠르드인, 그루지야인, 아제르바이잔인, 체첸인 등의 경우도 이와 같은 마찰이 자주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단순한 외부인의 이주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독특한 민족성, 빠른 경제적 성공, 종교적 차이 등은 민족갈등의 다양한 원인이 되고 있다. 메스케티안 투르크인들은 오랫동안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어오다 제3국인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그 갈등이 일단락 해결되기는 하였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남아있는 이들은 더욱 소수 이기에 이제까지 겪어왔던 불평, 사회의 시선과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민족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54) 크라스노다르 주의 여러 민족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Колесов В. И., Кочергин А. А., Лейбовский А. В. Мониторинг дискурса межэт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ультуртреуемый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Краснодар, 2002.

55) Колесов В. И., Кочергин А. А., Лейбовский А. В. Мониторинг дискурса межэт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ультуртреуемый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Краснодар, 2002, С. 20.

56) Симоян М. С. Новая волна мигрантов. Рост кризисных явлений в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русским и армянским населением Кубани (конец XX века), <http://www.mashtots.ru/istoria-armyan-kubani/>

52)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отразит этнический состав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24.10.2010. <http://www.perepis-2010.ru/smi/detail.php?ID=5445>

53) Бутаева М. А. Конфликтология ми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 Проблема социаль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2010, С. 79.

점점 여러 민족들과의 공존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갈등을 해결하기란 사실 어려운 일이다. 민족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토착주민, 수용지역의 정부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지인들은 이주민들을 타자로만 보는 시선과 고정관념을 거두고 그들을 동등한 지역주민으로 인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주정부의 경우, 많은 러시아 지역이 인구부족문제와 그에 따른 노동력 감소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주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 유입을 장려해야 할 입장이다. 또한 러시아가 다민족 국가이며, 러시아 내부 지역들도 다민족사회로 이루어진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조화와 통합이 절실할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주정부 또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민족갈등을 중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주민들은 이주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통합의지를 보여주면서 능동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Абдулманаров П. Г.** Этносоциальное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ЮФО <http://www.ipre.ru/wp-content/uploads/2010/02/abdulmanarov-pg.pdf>
- **Бугай Н. Ф.** Турки-месхетинцы: Долгий путь реабилитации.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М., 1994. С. 24, 38-45.
- **Бутаева М. А.** Конфликтология ми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Проблема социаль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2010. С. 77-81.
- **Кожевникова Г.** под ред. А. Верховского. Язык Вражды в предвыборной агитации и вне ее. М., 2004. <http://sova.center.ru>
- **Колесов В. И., Кочергин А. А., Лейбовский А. В.** Мониторинг дискурса межэт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ультивируемый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Краснодар 2002.
- **Осипов А.** 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й как внутренняя росси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Дипломатия. 2004, No. 4. С. 7-10.
- **Ракачев В., Ракачева Я.** Образ диаспор в прессе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Дипломатия. 2007, No. 1. С. 6-37.
- **Савва М.** Армяне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в контексте современной миграционной ситуации// 21-й век, 2007, No. 2. С. 71-87.
- Новые Диаспоры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права, интересы, динамика интеграции и восприятия местным обществом), Краснодар 2005.
- **Симолян М. С.** Новая волна мигрантов. Рост кризисных явлений в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русским и армянским населением Кубани (конец XX века). <http://www.mashtots.ru/istoriya-armyan-kubani/>
- **Юнусов А.** Ахыскытские (месхетинские) турки: Дважды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й народ//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вказ, No. 2, 1999. http://www.ca-c.org/journal/cac-02-1999/st_20_junusov.shtml
- **Berry J.W.**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Chun, P. Balls-Organista, G. Marina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Washington: APA Books, 2003. p. 17-37.
- **Вопросы регулирования ми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нали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2003. Вып. 3. С. 10.**
- **Постановление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No. 503 от 26.07.89, Постановление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РСФСР No. 220 от 13.07.89.** <http://www.memo.ru/hr/discrim/meshi2/general.htm>
- **Краснодар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йт** <http://krasnodar.ru/content/16/show/39797/>
- **Казак-центр сайт** <http://kazak-center.ru/publ/122-1-0-191>
- **Не забывайте, что вы в гостях!// Призыв, 2001, 8 сентября.**
- **Итоги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89 г.**
- **Итог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2002 г.**
- http://www.socpol.ru/atlas/portraits/k_kray.shtml
- http://www.interethnic.org/News/030507_6.html
- <http://www.kavkaz-uzel.ru/articles/119201>
- <http://kpd.nvrsk.ru/bib/tm/memo-1-03.htm>
- <http://minorities.ceprs.indem.ru/krasnod/krasnod12.htm>

- <http://www.perepis-2010.ru/smi/detail.php?ID=5445>
- <http://www.memo.ru/hr/discrim/meshi2/general.htm>
- <http://inosmi.ru/inrussia/20050808/221423.html>

- ИА REGNUM 09.03.2003. Губернатор Кубани “не хочет расставаться” с турками-месхетинцами.
- ИА REGNUM 16.10.2003. Возвращение турок-месхетинцев в Грузию - вопрос добровольный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 ИА REGNUM, 25.07.2004. Турки-месхетинцы покидают Кубань - этого дня кубанцы ждали давно.
- Кубанские новости 21.03.2001. Министр уехал, а турки остались.. пока?
- Кубань сегодня 01.02.2002. “Троянский конь” месхетинской проблемы
- РИА НОВОСТИ 19.03.2003. Казачий атаман приговорен к 17 годам тюрьмы.